42

C-반응성단백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

김윤정, 황순복, 김수영, 황인홍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연구배경: 대사증후군은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최근 염증반응의 지표인 C-반응성단백(CRP)이 관상동맥질환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 이에 연자들은 대사증후군에서 CRP가 증가하는 지를 알아보았다.

방법: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강동성심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1,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,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. 설문지를 통하여 흡연력, 과거력, 현재 질환 및 복용 약물 등을 조사하였고, 허리둘레 및 혈압을 측정하였다. 혈액을 채취하여 CRP, 고밀도지단백, 중성지방, 공복혈당을 측정하였다.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(NCEP-ATP III)의 진단 기준에 따라 대사증후군을 진단하였다. 대사증후군의 각 인자와 CRP의 관계를 알아보았고, 대사증후군인 군과 대사증후군이 아닌 군에서 CRP 농도를 비교하였다.

결과: 대사증후군의 각 인자와 CRP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, 혈압, 중성지방, 공복 혈당이 높을 수록 CRP 농도가 높았고 ($P<0.01$), 고밀도지단백이 낮을 수록 CRP 농도가 높았다($P<0.01$). 대사증후군에서 CRP의 기하평균은 0.89 mg/L로 대사증후군이 아닌 군의 평균 0.33 mg/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($P<0.01$).

결론: 대사증후군에서 CRP가 증가되어 있었고, 이는 대사증후군이 염증성 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.

중심단어: 대사증후군, C-반응성단백, 염증